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aersk pencils in pioneering trio of methanol-fuelled containerships

Maersk는 현대미포조선과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3,500TEU급 컨테이너 3척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추진함. 정확한 선가 및 규모는 공개되지 않음. Maersk는 지난 2월 2023년까지 탄소중립선박을 운항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Tradewinds)

IMO disappoints but sets up debate over long-term measures

IMO의 MEPC회의에서 탄소집약도를 2023-2026간 2%씩 절감하기로 의결함. 아직 최종 승인되지않은 CII는 2022년말 1% 개선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많은 조선사는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Oil falls from multi-year highs on firmer dollar, hike in UK Covid cases

연준의 2023년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에 몇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던 원유 가격이 전일 2% 가까이 하락함. 한편, 영국은 어제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1만명을 넘겨 도로 4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 급증세를 보임. 유럽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야기했다고 보도됨. (Upstream)

Longhaul naphtha shipments support large product tankers amid firm petrochemical margins

Alphatanker는 아시아 석유화학공장 신규 설치에 따른 납사 장거리 수송 수요 증가로 대형 PC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함. 올 6-9월 중국 및 한국에서 신규 석유화학공장 착공이 예정되어있음. (Tradewinds)

Guangdong leads China's offshore wind drive with ambitious pricing-parity plan

중국 광둥성은 2025년까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역량을 갖출 계획을 발표함.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전통 발전소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도됨. (Upstream)

해양수산부, 친환경 메탄올연료 추진선박 검사기준 개정안 승인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최종 승인한다고 보도됨. 전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조치임. (국제뉴스)